

SHERATON의 BIC 이사회

나는 정확히 제시간에 도착했다.

그녀는 거기 없었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Chanel이었다. 그녀는 사과했다. 택시 안에서 아직 오는 중이라, 5분만 늦을 거라고 했다.

몇 분 뒤 나는 그녀가 호텔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긴 금발 머리. 큰 키. 우아한 모습. 소개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감.

그녀는 프런트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맡긴 다음, 내 쪽으로 걸어왔다.

“Frega 씨, 안녕하세요. 제가 Chanel이에요. 저는 이미 Frega 씨가 어떤 분인지 안다는 이점이 있네요. 웹사이트의 영상과 사진이 헛된 기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터를 전혀 쓰지 않으셨다는 것도 사실이네요. 정말 소개된 그대로시군요.”

“감사합니다, 부인. 앉으시지요. 커피나 다른 마실 것을 드릴까요? 천천히 하십시오. 저는 바쁘지 않고, 숙녀와 함께 있을 때 신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공항에서 이미 커피를 마셨어요. 사실 오늘 새 향수를 뿌렸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 향기가 내 주의를 끌었다.

“그 향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제 감각에는 완전히 새로운 향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글쎄요, 이름은 프랑스의 오래된 고전이에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지요: 경기장에 한 발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탈리아 사람을 이기는가?”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아함 너머로, 그녀는 놀랄 만큼 지적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대화를 이어 가고 싶어졌다. 강한 공감이 거의 곧바로 생겨났다.

그녀는 방문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가 말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녀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따금 그녀는 말을 멈추고 모든 것이 분명한지 물었다.

어느 정도까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집중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만남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말을 했다.

"오늘 BIC France의 고위 임원 다섯 분이 저와 함께 왔어요. 그분들이 Frega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진짜 대화는 거기서 시작돼요."

내 주의는 곧바로 본론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그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신호했다. 어쨌든 나는 그들을 만나는 데 동의한 터였다.

순식간에 우리 일곱 명이 네 개의 소파에 둘러싸인 탁자 주위에 모였다.

처음에 나는 무슨 오해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왜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을 위해 프랑스에서 이 먼 곳까지 오겠는가?

그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이름은 M… A.입니다. 현재 BIC France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모두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했다.

상황은 금세 분명해졌다.

BIC의 경영진 전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만남의 이유는 내가 온라인에 올린 출판 공개매수였다.

그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실은 자신들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할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새로운 조직 안에서 다시 자리를 배치받게 될까?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

그리고 어쩐 일인지 이 연결은 Chanel을 통해 마련되었다. 그녀는 대부분 말없이 몸짓으로 소통했다.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감.

나는 그저 작가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대답은 만장일치였다.

“Gillette 사람이 말하면, 우리 주주들조차 침묵 속에 귀를 기울입니다. BIC 가문부터가 그렇지요.”

나는 잠시 쉬자고 청하고, 커피를 핑계 삼아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정했다.

상황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서사는 약속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Ferdinando